

우리집건강관리
!!!!!!!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집 건강 관리의 비결이에요

●아빠 조명희 ●엄마 김영숙 ●아들 조상권 ●딸 조혜영

발밑으로 굴러내리는 무수한 낙엽의 사르락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았던 어느 가을날, 기자는 동대문구 망우리 염창APT에서 부인 김영숙씨(30세, 주부,교사) 아들 상권군(5세), 딸 혜영양(2세)과 함께 아담한 사랑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

조명희씨(33세, 삼진물상 근무)를 방문했다.

이른 아침 망우리의 신선한 공기를 찾았을 때 상권이는 벌써 집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티하나 없이 맑고 건강한 모습

으로…….

『아무래도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꼭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기 보다는 평소의 모든 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기자의 방문을 포근한 미소와 함께 맞아준 김영숙씨는 이렇게 말문을 연다.

부군 조명희씨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말한다.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취미 삼아 테니스, 탁구 등을 즐깁니다. 탁구는 지금도 집사람이나 동료들과 자주 하지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탁구는 오늘의 가정을 꾸밀 수 있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고 한마디,

『대학시절 도서관 지하 탁구실에서 우연히 교수님의 소개로 알고나서 함께 탁구장을 다니던 것이 인연이 되었읍니다.』 라는 조명희씨의 밝은 웃음과 함께 그의 옆에서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 있는 김영숙씨의 모습은 구도가 잘 맞는 한폭의 그림이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모유영양을 권하고 싶습니다. 모유가 아이들, 더 나아가서 어느정도 성장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김영숙씨는 상권을 모유로 키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혜영이 만큼은 모유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그의 말을 수궁이라든 하듯 혜영이는 엄마의 옆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재롱을 피우고 있었다.

『요즘은 논란이 되고있는 체력장은, 당연히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시위의 생활로 운동할 기회가 별로 없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체력장이 좋은 운동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존폐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진단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어야지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김영숙씨의 이말은 건강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자부와 함께, 교사로서의 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지방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겠지요.』

부군 조명희씨는 『건강검진은 여러가지 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라면서 부인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또 직장에서 매년 받고 있는 건강진단 덕으로 자신의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해 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케 해주었다.

밝은 웃음과 함께 손을 흔들어주는 그들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오른 기자의 마음엔, 그들 가슴 속에서 말없이 영그는 참 사랑, 참 행복의 열매로 하여 벽차오르는 무엇이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높고 파래보였다. (이은희 記)